

## 4·29 재·보선 대표주자 확정... 전남도당 총력지원

### “반드시 승리하여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4월 29일 치러지는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전남 곡성 군의원 재선거에 나서는 우리 당 대표주자로 조영택, 이재호 후보가 각각 확정되고 9일 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특히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에 이어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고동계 인사들도 잇따라 조영택 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재·보선 승리를 위한 총력지원 태세에 나서면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남도당은 지난 3일 김현호 수석사무처장 등 사무처 당직자 4명으로 선거 실무지원단을 구성, 정당 선거사무소에

서 파견근무를 하며 조영택 국회의원 후보와 이재호 군의원 후보의 승리를 위해 뛰고 있다.

황주홍 도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한 디딤돌의 의미가 있다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여 당원과 국민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고문은 재보선 후보등록 첫날인 9일 김원기·임재정 전 국회의장과 함께 광주를 방문, 조 후보 사무실에서 당원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시당에서 민주동우회, 시당 고문 등을 만나 조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1일 광주서를 조영택 후보사무실에서 현장최고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표와 조영택 후보 등이 손을 맞잡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 ● 광주서를 국회의원

### 조영택 후보, “서구민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 광주서중·일고 졸업
- 연세대 졸업(행정학)
- 제13회 행정고시 합격(22세)
- 제25대 전남 장성군수(전국 최연소)
- 행정자치부차관
- 국무조정실장(장관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장
- 제18대 국회의원

“반드시 승리하여 서구민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3월 9일과 10일 후보 등록과 함께 4·29 재·보궐선거 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광주 서구의 조영택 후보는 “기필코 승리하여 당원과 구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의 성격을 지닌데다 서구구의 경우 천정배 후보가 탈당 후 무소속 후보로 나서 일여다야(一與多野) 선거구도가 형성됐다. 서울 관악을도 전통적인 야당 강세지역이었으나 정동영 후보가 탈당 후

국민모임 후보로 출마함으로써 야권분열을 조장해 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었다.

당 안팎에서는 전통적인 야당의 텃밭에서 야권분열로 선거 판세를 혼전양상으로 몰아간 두 후보에 대해 반드시 승리로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일 광주서를 조영택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 후보의 승리를 위해 총력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4·29 재보선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광주시민들께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서구를 보선 전남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주승용 최고위원은 천정배, 정동영 두 후보를 겨냥해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기는 새누리당 2중대라고 해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 곡성 군의원

### 이재호 후보, “희망을 주는 참된 풀뿌리 정치 실현”



- 곡성중학교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전라남도 7급 행정직 공채
- 구례군 지역경제팀장
- 곡성읍 산업팀장, 총무팀장
- 명예퇴직 지방행정사무관

곡성군의원 재선거에 나선 이재호 후보(52)는 “반드시 승리하여 참신하고 깨끗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승남 공천관리위원장(고흥·보성) 주재로 지

난달 말 열린 회의에서 조대현 예비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에 합의한 뒤 지난달 27일 군민과 권리당원 7:3의 비율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후보를 누르고 후보자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다수 군민의 편에서 능력과 열정으로 주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지방의원이 되면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는 물론 장애인, 다문화가정, 농민과 소상공인, 청장년 세대의 교육과 육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4·29 곡성군의원 재선거에는 이 후보에 맞서 강덕구, 박철규, 손신환, 임원자, 최태호 씨 등 무소속 후보 5명이 출마했다.

#### 발행인 칼럼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  
(창흥·영암·강진)

### 새로운 실험과 의미있는 집권

엣그제(4월 3일) 동아일보(Dong-A.Com)에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기사가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한국정당 사상 최초로 전남도당이 당비사용 내역 일체를 1원 단위까지 매월 당보를 통해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기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도 대체로 긍정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의미가 아니고는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는 격려도 받습니다. 다만, 현재의 권위주의적 한국 정치문화에서 이같은 전남도당의 참신한 시도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먹혀들고 지속될런지 지켜볼만하다는 우려도 없잖습니

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원들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당직자들이, 당원들이 낸 돈의 용처와 규모를 그 주인(당원)에게 아뢰고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도 참신할 것도 없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태까지 그 어떤 여야의 중앙당도 그 어떤 시·도당도 이처럼 기본상식에 속하는 재정정보를 단 한 번도 한 역사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정당 문화와 관행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들 자신은 불투명한 당 재정운영을 당연시하는 이윤배반의 ‘코리아 스탠더드’에 젖어 있었던 건 아닌지 되살펴 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에 당을 이끌어온 우리 당으로서 ‘자기 눈의 들보’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표방 논리와 대의명분은 낮부끄러운 나르시시즘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전남도당의 이 시도가 고작 시·도당 한곳의 이색 일탈이나 의미있되 비현실적인 기도로 국한되고만 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도덕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남도당의 이 시도를 침소봉대하려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무덤덤하게 평가절하 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평가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당의 집권능력의 한 지표로서 열린 토론주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4·29 재보궐 선거를 다들 걱정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역시 승패는 우리 당 후보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상대 후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당의 후보들이 얼마나 국민중심적이고 민생중심적이며 시대정신과 함께 하고 있느냐에 이번 선거 결과 역시 종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 편(또는 유권자 편)이면 우리 당과 우리 후보들은 무적이 되는 것이겠지요.

전남도당의 이번 시도는 우리 당의 이기는 습관, 승리하는 집권세력으로 가기 위한 한 과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집권이 아닌 의미있는 역사적 집권이 되려면 우선 우리들 스스로를 의미있게 쇄신해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 세월호 1년 잊지 않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건의

황주홍 도당 위원장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12명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과 박혜자 광주시당 위원장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 12명은 7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2013. 6. 26 본회의 통과)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5.18 기념곡 지정 논란을 떠나 5.18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통해 갈등과 분열이 아닌 우리 사회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황 위원장과 박혜자 광주시당 위원장을 비롯, 박지원, 김성곤, 주승용, 이개호, 이윤석, 박주선, 장병완, 강기정, 임내현,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정 의장은 8일 이완구 총리에게 “우리 사회가 남남갈등을 할 게 아니라 분열에서 통합, 갈등에서 봉합으로 치유해 하나가 돼야 국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겠냐”며 5·18 기념곡 지정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재검토를 촉구했다.

### ● 첫 최고위원회-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 “지역분권 실현, 고루 지지받는 당 만들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들 정책과 “인사·예산권한 강화” 한목소리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20일(금) 오전 국회에서 올해 첫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분권정당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는 지역분권 정당의 시작이다.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함께 지역분권 정당으로 전국에서 고루 지지받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석회의를 매달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시·도당 위원장들이 요청하면 횟수를 더 늘리거나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 체재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시·도당 위원장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 = 분권과 자치, 자치와 분권은 메가트렌드이며 시대정신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와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 한 일이라 생각한다.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강창일 제주도당 위원장** = 새 지도부가 지방분권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뒷받침하기 위해 시·도당 위원장들과 세 차례 모임을 가졌다. 임의기구지만 협의회도 만들었다. 연석회의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잘 해주시기 바란다.

**▲ 신경민 서울시장 위원장** = 분권화 정당의 핵심은 슬로건이 아닌 정책, 인사, 예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한다.

**▲ 홍영표 인천시장 위원장** =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재정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도부가 관심을 갖고 기초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 이학영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 그동안 시·도당의 역할이 미미했다. 어떻게 하면 도당과 지역위원회가 더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권형 정당으로 나아가갈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 = 새누리당이 견고한 아성을 지키고 있는 곳이 강원도다. 내년에 총선이라는 굉장



히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표가 되는 선거를 해야 한다. 정책 부분을 중앙당에서 빨리 집중 지원해야 내년 총선에 대비하는 체제를 갖추 수 있다.

**▲ 나소열 충남도당 위원장** = 재정과 인사에 대한 확실한 독립과 지원을 해주셔야 자체적으로 정책개발도 하고 지역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가능하다. 중앙당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

**▲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 = 지난 전당대회 때 문 대표를 비롯해 주승용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모두 중앙당 권한의 이양, 지역주의 극복 제도화, 시·도당 활성화 등을 약속하셨다. 이를 잘 이행하셔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 = 어제 영남 5개 시·도당 주최하는 선거개편 토론회를 시작했다. 관심 가져달라.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도부에서 4월 재·보선을 꼭 승리로 이끌어 달라.

**▲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 = 최근 도시사 한사람의 그릇된 소신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후진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무상급식을 흔들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경남에서부터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중앙당과 각 시·도당의 적극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는 “경제지표가 심각하다. 가계부채 1,100조원,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비율은 160%, 체감실업률이 11.5%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하루속히 우리 당이 제안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당, 당비 지출내역 투명 공개 언론 집중 조명

동아일보, ‘커피 한 잔까지... 파격 당비 공개’ 보도

도당(위원장 황주홍)의 당비 공개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당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2일자 인터넷판을 통해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 새정치 연 전남도당 ‘파격’ 당비 공개>라는 제목으로 도당의 당비 지출 내역 공개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 “정당들이 지금까지 당비 지출내역을 철저히 숨겨왔으나 최근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경우 지난해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당비지출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의했으나 이를 처음 실천한 게 전남도당”이라고 보도했다.

광주일보와 전남일보, 광남일보, 전남매일 등의 지역언론과 뉴스시 등의 통신매체는 물론 뉴스웨이 등의 인터넷 매체들에서도 당비 사용내역 공개 사실을 잇따라 보도했다. 이들 매체들은 도당의 당비 집행내역 공개 사실을 조명하고 이번 시도가 정치 문화개혁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황주홍 위원장은 “당보를 통한 당비 공개 사실이 알려지면 서 그동안 당을 불신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당비를 잘 납부하겠다는 기존 당원들의 격려성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 새정치 연 전남도당 ‘파격’ 당비 공개

항목	내역	금액
사무소 설치운영비	사무실 물품 구입비	59,300원
조직활동비	시·도당 지·군·구별 위원회 운영비(구·군별)	432,000원
조직활동비	시·도당 지·군·구별 위원회 운영비(구·군별)	150,000원
사무소 설치운영비	도당운영비	8,000원
인건비	사무비 당직자 출장 교통비	158,600원
사무소 설치운영비	사무비 당직자 원형당수 이행방안 보고 업무대행 수수료	220,000원
인건비	사무비 당직자 식대	14,000원
인건비	사무비 당직자 식대	69,300원
인건비	사무비 당직자 식대	99,000원
사무소 설치운영비	사무비 관내, 전(전)지(12월분)	1,106,578원
인건비	사무비 당직자 주재비	21,000원
인건비	사무비 당직자 식대	49,000원
인건비	사무비 당직자 식대	41,000원
사무소 설치운영비	사무비 CCTV운영료	49,500원
사무소 설치운영비	전월금 T.061-282-2066(지용이제)12월분	8,000원
사무소 설치운영비	전월금 T.061-285-9424(지용이제)12월분	5,600원
사무소 설치운영비	전월금 T.061-287-1219(지용이제)12월분	1,568,000원
조직활동비	전남도당 행사관련 현수막, 위원장 명패비	1,329,900원

### 도당 당직 인사

## 수석부위원장, 각급 위원회 등 당직 개편

전남도당(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열린 2차 운영위원회 당직 인선 심의건 위임 결정에 따라 명현관 도의회 의장을 수석 부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당직 인사를 실시했다.

도당은 또 3월 27일자로 당규 제9호(지방조직 규정) 제3절(시·도당 구성과 집행기구)에 의거, 상설위원회 당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음은 당직 인사 명단.

△수석부위원장 명현관 △정책실장 우승희 △대변인 김연일 △홍보위원장 정봉준 △전략기획특별위원장 박명서 △지방자치특별위원장 주우현 △여성국장 정옥남 △청년국장 나광국 △교육연수국장 최선화 △대외협력국장 최병희 △정책국장 송재환 △지방자치국장 이종식 △대변인 및 당보편집위원 변중섭 △당보 편집위원 김상인 △편집위원 송승환 △편집위원 김인아 △편집위원 장은영 △조직부국장 황재연 △전략부국장 이승길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생략) 유은숙 △김숙희 △정찬걸 △남기호 △윤명희 △하덕성 △김창남 △손광석 △정용환 △윤명희 △고용국 △김평환 △노동위원장 정용환 △여성위원장 윤명희 △청년위원장 고용국 △노인위원장(실버위원장) 김평환 △장애인위원장 이재한 △장애인부위원장 양상문, 서기영, 이재욱 △지방자치위원장 김원배 △대학생위원장 박주영 △농어민위원장 김광덕 △직능위원장 이만구 △교육연수위원장 이광일 △다문화위원장 박명규 △디지털소통위원장 이행도 △당원자적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생략) 김종숙 △이순이 △김창남 △김숙희 △윤리심판원장 허석 △윤리심판원 부원장 조정관 △윤리심판원 위원(이하 생략) 장영숙 △최한선 △서정암 △김석중 △김노급 △박소정 △조길자

“희망의 꿈 싣고 미래로 달리자”... 호남고속철 시대 개막

# 반나절 생활권 가능 2단계 구간 완공돼야 고속철 시대 완성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서울 용산 구간이 4월 2일부터 역사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고속철도 시대가 열린 지 11년 만이다.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최단 소요시간은 기존 2시간 37분에서 1시간 33분으로 1시간 4분이 단축됐다. 또 목포-용산은 최단 2시간 15분, 평균 2시간 29분이 소요된다. 여수 엑스포-용산은 최단 2시간 46분, 평균 2시간 57분 걸린다.

충청 이남에 고속철로가 놓이지 않아 그동안 ‘반쪽 고속철’을 이용해야 했던 지역민들은 서울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반나절 생활권을 가능하게 한 고속철 개통을 크게 반기고 있다.

호남고속철 개통까지는 전남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서대전역 경우 철폐’를 위한 공동 대처 및 요금 인하 촉구 등의 단합된 노력이 있었다.

전남도당은 지난 2월 1일 오후 목포역 광장에서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해 신정훈, 김영록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속철 논란을 일으킨 서대전 경우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2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호남권 광역·기초의원 등 220여명이 참석, 서대전 경우 철폐 캠페인에 나서 서대전 경우 철폐를 이끌어냈다. 또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유일호 국토부장관에게 광주송정-용산간 요금에 타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 요금인하를 촉구했으며, 많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증편·운영시간 단축 등 운영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착공 촉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하지만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의 2단계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고속철 개통은 전남 도민에게는 여전히 반쪽짜리 개통이다. 호남고속철도가 제대로 된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2단계 구간을 조속히 완공해야 한다.

당초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2단계 사업은 정부와 전남도 간의 노선에 대한 견해차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인 무안공항 경유에 대해 국토부와 전남도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송정-나주-목포를 연결하고 무안공항은 함평까지 지선으로 연결하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과 당원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눈 앞의 예산 절감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남의 먼 미래를 위한 노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안대로 기존선을 개량해 활용하면 직선화 구간이 줄어들어 시속 200km의 저속철이 될 수 밖에 없다. 무안공항 활성화도 더욱 멀어질 것이다.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은 복선화에만 36년이 걸린 ‘눈물의 호남선’의 재관(再販)이 되어선 안된다. 경부선은 1936년 복선화 사업을 시작해 1944년 완료했다. 그러나 호남선은 32년이나 늦은 1968년에야 착공해 36년만인 지난 2003년 완공됐다.

이에 대해 황주홍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정부는 지역여론을 존중해 노선문제를 조속히 결정해서 예정대로 2단계 사업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중섭 편집위원(부대변인)

## 논평

###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구간 조속한 완공을”

호남고속철도(KTX) 1단계 구간(광주 송정-서울 용산)이 1일 역사적인 개통식을 갖고 2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이로써 수도권과의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됐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최단 1시간 33분, 평균 1시간 47분으로 1시간 이상 단축돼 출퇴근도 가능하게 됐다.

KTX가 개통된 지 11년만이다. 호남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호남선 KTX는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과 함께 개통됐으나 무늬만 ‘고속철’일 뿐 실상은 ‘저속철’이었다. 충청 이남에 고속철로가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호남선 KTX는 노선을 확정하지 못해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광주-목포간 2단계 구간의 노선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호남선KTX는 광주-목포간 2단계 구간이 완공돼야 명실상부한 고속철이라 할 수 있다. 호남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변방의 낙후지대로 남아 있을 수 없다.

호남선 KTX 개통을 진정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면 2단계 구간이 조속히 착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2단계 구간의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전남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노선 문제를 매듭짓길 바란다.

2015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기사 순서는 법정 선거구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 박지원 의원, 동교동계 4·29 재보선 선거지원 뜻 밝혀



박지원 의원(목포)은 지난 6일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당을 살리고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동교동계가 4·29 재보선 선거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5일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 이후 침묵해온 박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권 고문이 동교동계를 잘 설득할 것이며 나와 동교동계가 재보선을 지원한다면 그것은 문 대표를 돕겠다는 게 아니라

당을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박 의원은 “대선 주자가 아니라 당 대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고 문 대표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7일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 50여명과 함께 국립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 고문, 박양수 전 의원 등과 만나 재보선 지원 원칙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주승용 의원, 세월호 참사원인 특별조사권 부여 주장



주승용 의원(최고위원·여수)은 6일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모두 참사 직후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헌했으나 지난 1년 동안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여론을 배상과 지원금 규모 등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하는 행태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데 참사 원인과 부실수습 관피아 문제 등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서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박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 우윤근 의원,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입장 ‘환영’



우윤근 의원(원내대표, 광양·구례)은 7일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 77%가 선체 인양을 원하는 만큼 정부도 대통령의 말대로 온전한 채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늘 날짜에만 집착할 뿐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며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대타협이고, 대타협 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소용없다”고 밝혔다.

### 김승남 의원, ‘3무 자연재배 농법’ 새로운 농가 소득창출원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3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재배 농법(무농약, 무비료, 무퇴비)이 3년에 걸친 시험·확대재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재배농법은 김의원의 공약사업으로 2012년 2ha의 시험재배를 시작으로 2013년 10ha, 2014년 20ha로 확대 실시하였다. 2014년 생산된 벼는 약 80톤(조곡기준)이

며, 2015년도에는 3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흥군과 곡물유통업체인 월드그린영농조합은 3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도의 쌀생산량을 40kg당 7만8천원에 전량 구매 및 유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김영록 의원, 새누리당은 약속대로 이 전 대통령 증인채택 하라



김영록 의원(수석 대변인, 해남·진도·완도)은 지난 6일 “해외자원 개발비리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문재인 대표가 증인 출석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 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정치공세였음을 스스로 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면 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혀왔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숨겨진 비리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 김성곤 의원, ‘여수, 꽃피다’ 주제로 의정보고회 개최



김성곤 의원(여수갑)은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간 돌산(읍)을 시작으로 거문도(삼산면)까지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합동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여수, 꽃피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난 1년 간 당 비상대책위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던 중앙정치 활동

과 더불어 지역예산 확보 현황 및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각 지역별 민원 및 애로사항도 면밀히 청취하였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 중 접수된 요구사항은 여수시와 담당 도, 시 의원들과 협의하여 빠른 시한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신정훈 의원, 박 대통령에 호혜원 에너지 복합단지 개발 건의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일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혁신도시에 인접한 나주 호혜원을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기업단지 및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복합단지’로 개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강인규 나주시장과 함께 “호혜원을 국비부담 없이 빛가람 에너지밸리 실현과 배후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 복합단

지’로 개발,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호혜원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며, 현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의 폐업보상이 추진되고 있다. 한센인촌인 호혜원은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가 1965년과 1971년 방문해 한센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한 바 있다.

### 이개호 의원, ‘농로변 농막 설치 가능’건축법 개정안 발의



이개호 의원(함평·영광·장성·담양)은 3월 29일 도로가 없더라도 농막 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농막을 포함한 건축물은 너비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등의 통행이 필요치 않은 농로 주변이라 하더라도 임시가설물 등 농막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

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는 “도시의 주거지 등은 도로 규정에 따라 건축하는 게 맞지만,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은 농막설치 제한에 따라 농사에 불편함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에 주거하며 인근 농촌 지역에서 텃밭 등을 일구던 도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황주홍 의원, 고향투표제 도입 입법 공청회 가져



‘고향 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황주홍 의원(도당 위원장, 장흥·영암·강진) 주최로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황정근 변호사의 발제와 김만홍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입법조사처 이현출 심의관은 “이대로라면, 일본처럼 ‘농어촌 지방자치단체 소멸론’이 나올 것”이라며 “제도화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정열 재경 광주전남향우회장은 “고향투표제가 미진한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한 몫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장재영 법제과장은 연고주의를 조장하고 향우회의 선거영향력을 증대시킬 우려를 표했다.

앞서 황 의원은 3월 10일 유권자 뜻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이윤석 의원, 신안안좌 무안 청계 어촌 특화사업 선정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은 ‘2015년도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에 신안군 안좌면 한운·사치 마을과 무안군 청계면 구로마을이 선정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선정된 사업은 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종합, 12개 마을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3월 한 달간 23개 읍면 순회 의정보고회에서 어촌계 건의

를 받고 농어촌공사, 해수부 관계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선정에 힘을 쏟았다.

이 의원은 “구로마을은 청정 갯벌과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한 각종 체험과 축제가 연계된 6차 산업형 체험어촌마을로 여건이 충분하고 한운·사치 마을은 수많은 역사 자원과 독특한 관광자원 등이 분포해 있는데다가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 인터뷰 | 신정훈(나주·화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공정한 선거제도·지역주의 극복하는 정치개혁 최선

인구편차·농어촌 지역 대표성 조화시키는 접근 필요  
비례대표·석패율 장단점 비교 심도있는 논의 거쳐야



새로워진  
전남도당

## 도당 재정운영 효율성·건전성 높인다

예산 10억원 광은·농협에 분산예치  
2%대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전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고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8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오는 8월까지 활동하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의원 정수 조정 등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20명의 위원 중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임된 신정훈 의원으로부터 활동 포부를 들어보았다.

광주·전남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정개혁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역할과 각오는.

-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고, 무엇보다 지역 주의를 극복하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이제 역사적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대표성을 지켜내도록 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주춧돌을 놓는데 힘을 보태겠다.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해 표의 등가성 원칙만을 강조할 경우 전남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 농어촌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 등가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7곳 이상의 군 단위가 한 선거구로 묶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역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가뜰이나 노령화와 인구 감소, 동시다발적 FTA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분야의 정치력과 대표성이 더욱 취약해지고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 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이유다.

농어촌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줄여달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잘 조화시키는 게 관건이다. 인구외의 비인구적인 요소, 행정구역, 지세, 교통, 역사성과 지역적 일체감 등도 고려 요소가 돼야 한다고 본다. 도·농간의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과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일정부분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충분하고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석패율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정치 신인 보다 중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지역구의 대폭 축소가 없으면서도 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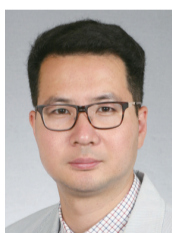
앞으로의 정개혁위 일정은 어떻게 되나.

- 현재 예정된 활동 기한은 8월말까지다. 논의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연장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김호진 | 기획국장

## 정권심판-정권교체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

● 남약시론



송승환 편집위원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 이유는 강력한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치, 산업, 금융, 법률, 행정, 언론의 특권집단들이 국가를 사익(私益)의 도구로 전락시켜 불공정, 반칙, 특혜, 자의적 지배 등을 일삼으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독식해 왔기 때문이다. 특권과두세력들에 의한 지배의 결과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통합이 균열되고, 민생경제가 파탄나 버린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정권교체는 특권과두세력들의 약탈적 지배를 견제하는 데에 매우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민주화 이후 정권이 여러 정당들 간에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교체되어 오기도 했지만, 특권집단에 의한 지배는 더욱 더 공고해지기만 했다. 이제 그와 같은 지배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분노에 찬 대중들의 목소리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라는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새로운 정치란 정권심판-정권교체를 넘어서는 것이다. 정권심판-정권교체는 현재의 정치질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새로운 정치란 낡은 기성정치의 틀 전체를 바꾸는 혁명과업이다. 2016년 총선을 맞는 새정치

민주연합은 낡은 정치에 전면적으로 균열을 내야 한다. 낡은 정치가 없어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바로 그런 낡은 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국민들이 정권심판-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정치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는 그동안 국가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세력들을 준열히 심판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낡은 정치가 지속된다면, 한국정치는 또 다시 소모적 대결과 파행, 대표성의 왜곡과 특권세력의 발호라는 지루하고 고단한 전철을 되풀이해야만 한다.

2012년 대선은 역사상 가장 진보적 정치지형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보수정권 심판과 특권 타파를 요구하는 대중정서가 확산되고 진보적 정책이슈들이 주도적 의제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위기의식이 강하면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소득 하위계층과 50대 이상 유권자층의 이반이 치명적이었다. 진보진영은 그들의 위기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가치를 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는 '자상한 아버지' 리더십 모델을 통해 '새시대 첫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지만 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반면에 보

수진영은 대중의 사회경제적 위기의식과 박근혜 후보의 '강한 어머니' 리더십 모델과 일체화함으로써 '위로'와 '구원'을 약속하는 프레임(frame)을 만들었다. 지금 야권은 새누리당과 현 정권에 등 돌린 민심을 보면서 내년 총선을 자신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역대 총선의 결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새누리당의 진지(陣地)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며, 최소한의 방어를 통해 언제든 지보다 강력한 힘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내에 근거 없는 장밋빛 낙관론이 팽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진보진영은 정당 간 역학구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준의 확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현재의 질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진보정당 모두 유권자의 정치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는 데에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우려스러운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우려스러운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위한 더 큰 진보' '더 크고, 더 새로운 변화', '중단없는 과감한 정치혁신'을 위한 운동을 즐기자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정권심판-정권교체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의 환한 불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말이다.

# “국민에게 희망 주는 당, 당원 중심 당이 되어야”

## ‘자기혁신’의 관점에서 처절한 성찰 필요 국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 찾아야

‘당원 속으로’ 섹션(Section) ‘원로에게 듣는다’ 시리즈는 척박한 호남의 정치 환경 속에서 외길 아당의 길을 걸어 온 원로 및 중진당원을 모시는 페이지입니다. 그들의 걸어온 길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한국 정치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장성지역위 이길수 상임고문을 모십니다. <편집자 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온 원로당원이 있다. 올해로 정당생활 61년째, ‘정치회갑’을 맞은 이길수씨(李吉洙 83세). 암울한 독재정권 시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꿋꿋하게 투쟁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그는 전남 야당史의 산증인이다.

현 장성군 지역위원회 상임고문이자, 전 민주당 담양·장성 지구당 부위원장인 이 고문은 오직 민주주의를 심겠다는 일념으로 젊은 시절 사재를 털어 당과 조직을 위해 헌신했다. 때로는 정권과 야합한 동지들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중앙당의 ‘공천장사’의 희생물이 되기도 했다. 번치 않는 야당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굳은 신념 때문이었다.

야당인으로 녹록치만은 않았던 삶, 가족을 가족답게 돌보지 못해 80이 넘어서 자식에게 미안하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아내에게 미안할 뿐이다. 젊은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해관계를 쫓지 말고 당의 이념에 충실하라, 당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라”는 것.

### 지역위원회 든든한 버팀목이 된 삶

이 고문은 장성 진원면 태생으로 광복 후 서중·일고를 거쳐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6·25 전쟁 중 전화를 피해 전국 곳곳으로 임시캠퍼스를 옮겨다니며 공부를 해야 했다. 당시 현민 유진오 박사의 헌법학 강의를 들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이념을 갖게 되었고,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꿈을 키웠다.

전쟁 직후 김병수(한민당) 국회의원이 장성군지역위원장 시절 한민당에 입당하면서 그는 골수 야당인의 길을 걷게 된다. 지역구 청년조직을 총괄하는 청년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뒤 장성 출신의 내로라하는 야당 정치인들과 조우한다. 김녹영 전 국회부의장, 김상현 전 민주협 공동의장 권한대행, 박철용 전 신민당 의원 등 장성출신 거물 정치인들이 동지들이었다. 그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 그는 지역에서 줄곧 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떠맡아 피와 땀으로 정통 야당을 사수하며 그들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이진연(신민당 장성·영광·함평) 국회의원과 김효석(민주당 장성·담양) 국회의원 시절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흔한 군의원, 도의원 한번 해보지 못했다. 욕심도 없었지만, 때로는 당의 공천장사에 희생됐고, 때로는 권력과 야합한 동지에게서 배신당했다.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그러나 미련도 없고 욕심도 없다.

그동안 도당 청년위원장, 고문 등을 수차례 역임했으며, 한때 당보였던 <민주전선>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 평생 이념을 쫓았던 질곡의 세월

한독당, 한민당, 민국당, 민주통일당, 신민당, 평민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수없이 이합집산했던 야당이지만, 그에게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민주주의 수호라는 당의 이념이었다. 그는 그렇게 한 평생 당의 이념을 쫓아 질곡의 세월을 건너왔다.

“

정권의 감시 하에 야당 사람은 행세를 못했었지,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적은 정권보다도 내부의 적이었어.... 내가 오전에 작성한 ‘성명서’가 오후엔 정보과 형사 손에 들려 있었어... 밤엔 야당, 낮엔 여당 활동을 하는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서웠어요

”

그는 긴 세월 야당인의 삶 중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70년대와 80년대에 독재정권의 감시 하에 야당 사람은 행세를 못했었지, 그런데 가장 무서웠던 적은 정권보다도 내부의 적이었다”고 회고했다. “내가 오전에 작성한 ‘성명서’가 오후엔 경찰서 정보과 형사 손에 들려 있었어요. 밤엔 야당, 낮엔 여당 활동을 하는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엔 최루탄 연기에 눈물도 적잖이 흘렸다. “밤낮없이 눈물로 보냈지. 낮엔 최루탄 연기에 울고, 밤엔 동지들과 독재타도, 민주화를 외치면서 울었어. 그때 함께 못재(장성-광주간 국도의 높은 고개)를 넘어다녔던 젊은 동지들이 눈에 선해, 지금도 만나면 고맙기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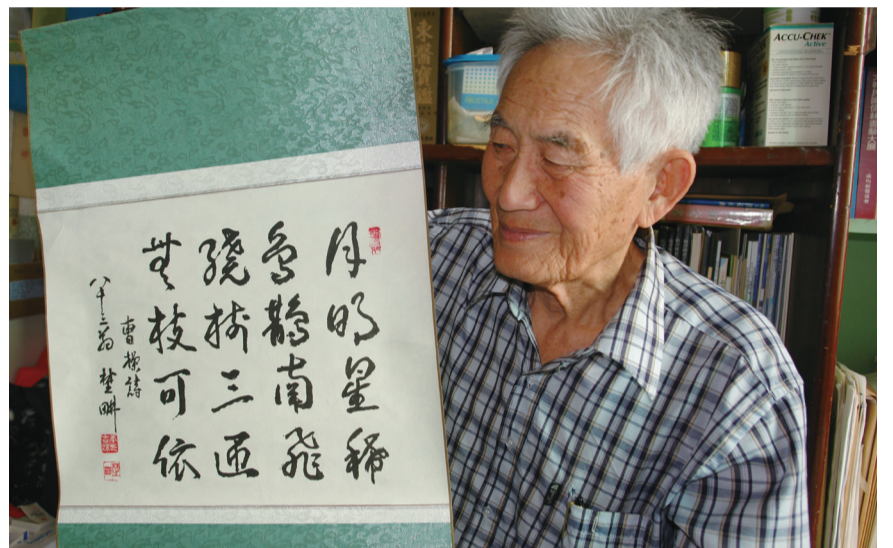
그 때 흘렸던 눈물, 피와 땀이 민주화와 정권교체의 거름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랜 세월 야당인으로서의 삶이 가족들에게 미안함으로 남는다. 골수 야당 전력 탓에 80년대에 해군 영관 급장교로 전역한 셋째 아들은 한때 취업을 하지 못했다. “‘정치바람만 피운’ 나를 평생 뒷바라지 해준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며 “험난했던 야당의 삶, 모든 슬픔과 기쁨을 이제 좋은 포장으로 세월과 같이 묻어버리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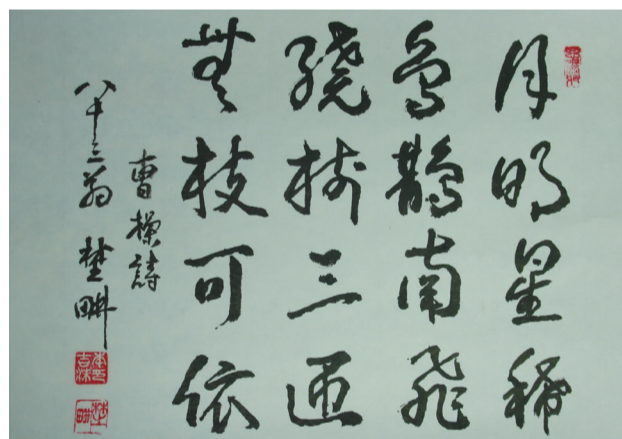
### 정당 역할 못하면 국민 의지할 곳 없어

이 고문은 현재 장성문화원 자문위원, 장성문화회 지도위원, 장성예총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서예(書藝)에 몰두하고 있다. 그가 수 십년간 국전 등에서 입상했던 서예작품만 70여점.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다며 소장하고 있던 한 작품을 꺼내 보여준다.

月明星稀 烏鵲南飛(월명성희 오작남비)  
달빛 밝아 별빛 흐려지는데 까막까지 남으로 날아가는구나  
繞樹三匝 何枝可依(요수삼첩 하지기위)  
나무 주위를 세 차례 맴돌아도 어느 가진들 의지할 곳 없네



자신의 서예작품 ‘월명성희’를 펼쳐보이는 이길수 상임고문.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 조조가 오(吳)나라의 손권과 촉(蜀)나라 유비의 연합군 10만 대군을 맞아 적벽(赤壁)에서 대전(大戰)을 앞두고 읊은 시다. 조조는 달(月)은 자신을, 별(星)은 다른 영웅을 가리켜, 큰 영웅이 나타나면 군웅의 존재가 희미해짐을 비유했다.

그러나 이 고문의 해석은 남다르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데(月明星稀) 까막까지 모든 남쪽으로 날아가고(烏鵲南飛), 국민은 의지할 곳 없이(何枝可依) 횡한 들판에 그냥 서 있는 것 아닌가” 정권과 정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지도자들이 ‘자기 혁신’의 관점에서 처절한 성찰의 마음으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메시지다. 정당은 국민의 가슴에 항상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

그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확고한 이념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원과 당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권을 쫓지 말고, 이념을 쫓으며,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야당의 독립성 확립, 국회의원 중심의 당이 아닌 당원 중심의 당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변중섭 | 편집위원(부대변인)

● 클로즈업 | 윤민수 별정우체국중앙회장(고흥 동강우체국장)

# 20년간 농어촌 주민 ‘친절한 이웃’ 우편·금융서비스, 지역특산물 판매 ‘봉사’

“별정우체국은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중 대표적 성공사례”

‘당원 속으로’ 섹션 ‘클로즈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과 도당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권리당원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난입니다. 이번 호는 영세한 시골 별정우체국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중앙회를 맡아 이끌고 있는 윤민수 회장으로 부터 시골우체국의 애환과 현안을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시간이 멈춘 듯 변하지 않는 가슴으로 편지를 부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고흥군 동강면 원유둔 1길에 있는 동강우체국. 이 곳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시골의 작은 별정우체국이다.

비록 인구 3천여명의 작은 시골의 영세한 별정우체국이지만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나 서비스만큼은 여느 일반 우체국과 다를 바 없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하고 정겨운 서비스는 시골에 있는 별정우체국만의 특징이다.

우체국을 지역의 사랑방이자 소통 창구로 키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윤민수 동강우체국장(51)으로부터 별정우체국의 애환과 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멤버로 입당한 그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전남지부장, 전남도당 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도당 정보통신기술특위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그는 지난해 4월 별정우체국 연합체인 별정우체국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별정우체국 중앙회는 시골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별정우체국들을 대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회는 1980년 4월 설립된 전국별정우체국장연합회가 모태가 됐다. 당시 체신부가 별정우체국을 일반우체국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법 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던 우체국장들이 연합회를 결성했다. 연합회는 직원 공제사업 등을 벌이며 1982년 별정우체국향상회, 1988년 별정우체국중앙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현재 전국 8개 도회와 154개 지회를 갖추고 있다. 그 아래로 전국 753개 우체국, 3천90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 금융·우편서비스 사각지대에 고마운 존재 ‘시골 우체국’

윤 회장은 “54년 동안 묵묵히 헌신해온 별정우체국 제도야말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역사에서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제도”라고 소개하고 최근 일고 있는 별정우체국 2세 승계 등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별정우체국은 국가재정이 열악했던 1961년 ‘1읍면 1우체국’ 실현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탄생한 사설 우체국이다. 즉, 우체국이 없는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개인이 국가의 승인아래 자기 부담으로 청사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국가에서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곳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국의 별정우체국은 모두 753곳, 종사자는 3천89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95%가 농어촌이나 산간 벽지 등의 소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고흥의 6개를 비롯, 전남에는 123개의 별정우체국이 있다. 한 때 전국적으로 800여곳에 달했으나 우정사업본부가 자연감소된 지역에 연계승인을 해주지 않아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전체 우체국의 20.7%를 차지하지만 연간 운영 예산은 2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7%에 불과하다. 또 일반 우편 업무 외에 우체국 택배를 통한 지역 특산물의 판매 및 알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 왔다. 농어촌 주민들의 금융편의 제공,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고용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저비용 예산구조 속에서 지난 1961년 이후 50여년간 수행해온 공과는 제쳐두고 정부가 ‘창구망 효율화’ 명분으로 사유재산인 별정우체국의 수를 줄이려 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정부는 별정우체국을 자녀 또는 배우자에 한해 1회 승계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별정우체국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애초 수지가 맞지 않은 곳에 우체국 설치를 권장해



열린우리당 창당멤버인 그는 ‘노사모’ 전남지부장, 전남도당 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도당 정보통신기술특위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그는 지난해 4월 별정우체국 연합체인 별정우체국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놓고 이제 와서 적자를 이유로 소유권 승계제한을 제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권 승계는 국가가 우체국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사유재산 상속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별정우체국들이 없으면 면(面)지역 체신업무는 앞으로 군청 소재지로 나가야 해 주민불편이 커질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 50여년간 헌신 묵묵한 공로, 평가절하 말아야

젊은 시절 몸이 허약해 병치레를 하느라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윤 회장은 1996년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우체국을 경영해오고 있다. 별정우체국들은 90%정도가 윤 회장처럼 가업으로 승계하고 있다.

그는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도시지역에도 별정우체국을 도입하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규제 위주로만 나가는 정부에 사고를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일반 우체국의 절반 수준의 운영예산으로 전국 면 지역 1,201곳중 60%에 해당하는 720개 면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우리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윤 회장은 “국가 공무를 직접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도 처우 문제는 물론 신분에 대한 불안감까지 가지고 있는 별정우체국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관심과 성원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박민건 | 민원국장

● 목포지역위원회

당원과 도민의 소통창구인 지역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부터 목포를 시작으로 전남지역 각 지역위원회를 탐방합니다. 본 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 위 운영방침, 당직자 소개, 각 지역위 현안사업 등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 금귀월래(金歸月來) 실천, 시민과 대화하는 정치 지향



박지원 위원장

“ 투명한 공천 실현, 지역발전 위한 예산 확보  
 몸 사리지 않는 대여투쟁, 지역 의원들과 소통 강화 ”

“금귀월래(金歸月來)! 목포로 갑니다. 시민들과 대화를 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73·전 원내대표)은 지난 10일(금) 지역구인 목포로 내려가면서 트위터에 이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지역구인 목포에 내려와 지역민들을 만나고 지역현안 사업을 챙긴 뒤 월요일에 상경하는 ‘금귀월래’를 실천하고 있다.

주말인 11일 오전 목포시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2층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지역위 사무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위 사무실에는 박 의원을 만나려는 민원인과 지역정치권 인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출근하자마자 한 사람씩 차례차례 만나며 면담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주중에는 조용했던 지역위 사무실도 주말이 되면 마치 월요일처럼 갑자기 분주하고 긴장감이 돈다.

이승환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들과 자유롭게 만나 여론을 청취하는데 지역구 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방문객이 많다”고 소개했다.

목포지역위 직원들은 박 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주말 이틀간을 열심히 근무하고 평일에 돌아가면서 하루씩을 쉬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이 사무국장은 진도 출신으로 목포와는 연고가 없지만 5년째 목포에서 박 의원의 지역 활동을 돕고 있다.

목포지역위에는 이 사무국장 외에 4명의 당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송진호 보좌관과 손상식 비서관(수행), 문성훈 총무부장, 그리고 문영희 간사. 이들은 언제나 면담요



이승환 사무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휘호를 설명하고 있다(위). 이승환 사무국장과 문성훈 총무부장(아래)

청이 줄을 잇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자주 노출되는 박 의원을 보좌하느라 눈코 뜰 사이가 없다.

지역에 내려와서도 조찬 회동부터 시작하는 박 의원은 현장 일정을 소화하느라 점심을 건너뛰기가 일수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필수적이다. 사실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지역구에 내려오는 것은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

박 의원의 건강 관리 비법은 따로 없다. 시간 나는 대로 밖에서는 걷고, 집안에서는 실내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이

유일한 건강관리 비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박 의원은 1992년 민주당 전국구 공천을 받아 정계에 입문한 뒤 지난 18대(2008년), 19대 총선(2012년)까지 목포에서 내리 재선을 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 청와대 공보수석을 지냈다. 이어 문화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김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래서 목포사무실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휘호와 사진, 각종 상패로 가득 차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의 남북 정상회담 사진, 김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 경천애인(敬天愛人) 휘호 등 김 전 대통령의 체취가 가득한 사진과 붓글씨로 둘러싸여 있다. 박 의원이 실천하고 있는 ‘금귀월래’도 김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박 의원에게 반드시 실천하라고 조언한 덕목이다.

이 사무국장은 “1년 56주 가운데 올해 당 대표 출마로 인한 전당대회 기간 2주를 제외하고 금귀월래를 실천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구 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외를 나가신 적이 없다”고 귀띔했다.

박지원 의원의 지역위 운영 방침은 5가지로 요약된다. △투명한 정치 실현을 위해 이른바 ‘공천장사’를 없애고 △금귀월래 실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구와 인근 지역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대여투쟁에는 몸을 사리지 않고 싸우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교류와 소통으로 호남 정치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주에도 권노갑 상임고문 등 4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서울 관악을 정태호 후보의 4.29재보선 선거 운동 지원을 한 뒤 서둘러 금귀월래 했다.

재·보선 선거운동 지원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박 의원은 재·보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최근 불거진 여권 수뇌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리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를 정치적 사건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했다.

홍지영 | 편집인

연매출 100억 달성의 해!  
우리는 가족이다!  
좋은사원! 좋은제품! 좋은회사!

고객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맛있고 정갈한 반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더원푸드 임직원 일동 -

단체급식  
위탁운영

반찬제조  
식재료유통

출장뷔페  
도시락  
야외행사

반찬쇼핑몰  
'경개닷컴'  
구축 중

(주)대창식품·더원푸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85-1 B1 대표 이남규  
 TEL : (062)943-9423~4, 971-8781 / 010-3817-3553



● 2. DJ와 그의 사람들 ① 반세기 동고동락한 동교동계

# 태생적 소수파·비주류 한계로 고난의 정치역정 시작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주변에는 끊임없는 인맥의 명멸이 있었다. 김대중(이하 DJ)의 '정치 40년'은 정적의 탄압과 특정 지역의 배척, 기독교세력의 견제 대상으로 점철돼 있다. 그의 삶은 대부분 정치적·지역적으로 소수에 속해 있었다. 줄곧 독재정권의 모진 탄압에 시달리며 인고(忍苦)의 세월 속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계속해야만 했다.

주변인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단지 정치적 동지란 이유만으로 고난의 길을 함께 해야 했다. 당연히 그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물줄기가 바뀔 때마다 그의 '동지'들도 자의반 타의반 이합(離合)을 되풀이했다. 신민당 후보 시절, 또 미국 망명시절, 80년대 이후 제1야당 총재 시절 그를 찾아온 인사도, 그의 곁을 떠난 인사도 헤아리기 어렵다. 한국정치사는 DJ와 그를 둘러싼 인맥들에 대해 '동교동계'라는 별칭을 주었다. '동교동계'는 한때 라이벌이었던 '상도동계'와 함께 한국정치를 양분했다. 그러나 그가 1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동교동계'

대립각이지 따지고 보면 남산의 조직과 돈, 그리고 권력에 기댄 공격과 동교동의 맨주먹 투쟁, 방어의 끝없는 전투였다.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산과 동교동의 대결 양상은 볼 수 없었다. DJ는 아직 젊었고 동교동이라는 실체는 매우 미약했다. 오히려 김영삼 의원이 김형욱의 중앙정보부로부터 초산테러를 당하는 등 정보정치와 더 침예하게 대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40대 초반의 곡절 많은 국회의원, 말 잘하고 머리 좋은 신진기예의 일인이었을 뿐이다.

게다가 비주류였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제기된다. 반듯한 정규대학 졸업장을 갖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해석, 호남 출신이라 곁돌고 주류 중진들로부터 소외됐다는 해석, 머리가 비상하고 성격이 유별나서 주류와 어울리지 못했다는 분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김대중은 비주류의 야당 원로들이 둘러싸서 기른 특이한 이력의 주인공이다. 그가 1950년대 목포에서 상경했을



신민당 시절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 포스터(좌), 선거의 귀재 엄창록(우)



## 1954년 목포, 58년 강원인제 원정출마 잇따라 고배 박순천·홍익표·윤제술·정일형 등이 정치적 후견인

의 의미가 퇴색됐다. 아니 '동교동계'의 쇠락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1995년 정계복귀 후 DJ가 네 번째 대권도전을 결심했을 때부터 '동교동계'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그는 1987년, 92년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호남과 서울 중심의 전통적 지지기반만으로는 더 이상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정계복귀와 동시에 자신에게 덧씌워진 '호남'과 '진보'의 색깔을 벗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다.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호남 방문을 자제했고, 호남 출신들을 당의 전면에서 배제했다. 대신 외부에서 영입한 비 호남 인사들을 당 지도부에 파격적으로 배치, 영토확장을 꾀했다. 때문에 당내 호남 출신 인사들의 입에서는 '역차별'이란 불만의 소리도 적지 않았다.

### 비주류 정치인 김대중의 좌절

3선 개헌이 추진되던 1960년대 후반부터 DJ가 마지막 대권 도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97년까지 적어도 30년 동안, 한국 정치의 핵심적 대립각은 남산(구 중앙정보부)과 동교동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의 국회의원 낙선(67년의 마지막 지역구 출마)을 겨냥한 정치공작에서 97년 대선 당시 안기부가 꾸민 북풍공작까지, 말이

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걸도는 무명에 불과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선박사업을 했고 지역신문사 사장을 지냈다고는 하나, 손에 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부모 덕을 타고난 것도 아니기에 좋은 집안을 자랑할 수도 없는 편모 슬하의 빈궁한 청년이었다. 학벌도 목포상고 졸업장밖에 없었다. 서울에 지인, 친척이 많을 수도 없었다. 주류의 반열에 기대 설 조건이라고는 한 가지도 갖춘 게 없었다. 비주류라는 것은 신문이 붙인 이름일 뿐이다. 세상 이치가 그러하듯 주류가 힘과 돈의 중심을 장악하고 자투리 잉여들이 비주류로 불릴 뿐이다.

주류는 스스로의 선택과 쟁취로 이루어진다. 주류는 승자나 선두주자들의 자랑스런 대열이다. 반면 비주류는 스스로 택한 길이 아니다. 지고 밀리고 소외돼 도리 없이 불리는 가련한 이름이다. 다만 낙오자 그룹에도 머릿수가 있고 주류에 대항하는 반사적인 입지가 있기에 비주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박순천 홍익표 윤제술 정일형 같은 비주류가 김대중의 정치적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과 동교동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훑어볼 차례다. 국회의원 선거 첫 출마는 1954년 목포에서였다. 3대 민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서 고배를 마셨다. 58년 5월 4대 민의원 선거 때는 멀리 강원도 인제에 원정

출마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4대 선거는 자유당 정권 말기 여당 후보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김대중은 선거관리 당국도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상대 후보의 횡포가 심한 가운데 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그의 근성과 '동교동식'이라고나 할 투지는 이때부터 엿보인다. 굴하지 않고 여당 후보에 대항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하고 싸웠다. 그리고 선거 후에도 선거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 후보등록 방해 소송을 제기했다. 59년 3월 법원은 1년여의 심리 끝에 4대 인제군 민의원선거를 무효로 판결하게 된다.

### 권노갑·엄창록 등장, 동교동 인맥 배태기(胚胎期)

59년 6월 인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또 실패. 자유당 후보측은 색깔론으로 DJ를 잡았다. 동교동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DJ와 일면식도 없는 전라도 사람을 데려다 김 후보가 마치 공산당과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 모략을 하게 만들었다. 또 유권자의 7할 이상이 군인이었는데, 군부대 투표장에서는 여당 후보란에만 기표시키는 부정행위도 공공연히 자행했다"고 한다. 인제 선거는 DJ의 미래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상 시비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인제 선거까지 세 번의 선거 실패로 김대중은 궁핍의 나락에 떨어졌다. 그 와중에 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해 8월 5대 민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끼니조차 걱정할 정도로 어려워진 김대중은 다시 인제로 나가 근근이 싸웠으나 1000여 표 차이로 낙선하고 만다. 네 번째 실패였다.

그러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어 장면 총리 내각이 발족한다. 이때 그는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민주당 대변인으로 발탁된다. 머리 좋은 청년 능변가, 그러나 선거에는 지독히도 불운했던 그에게 다행히 중앙정치 무대가 문을 열어준 것이다.

선거 빛 때문에 아내까지 잃는(자살) 비운을 맞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다. 김대중을 이긴 나상근 민의원이 3·15 부정선거 연루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이 박탈되고 보궐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61년 5월 13일 보선에서 김대중은 정계 입문 7년 만에 금배지를 달게 된다. 5월 14일 인제군 선관위에서 당선 확인증을 받았다. 파란만장의 끝인 줄 알았다. 그러나 더 큰 풍파와 좌절의 시작이었다. 이틀 뒤 5·16 군사 쿠데타와 함께 국회 해산. 등원 한번 못한 채 다시 무직이 되고 만다. 그 무렵 권노갑·강원채(민한당 국회의원)·엄창록 등이 나타난다. 동교동 인맥의 배태기에 해당한다.

송승환 | 편집위원



권노갑 상임고문, 김옥두, 박양수 전 의원, 박지원 의원(왼쪽부터)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국립현충원 DJ 묘소를 참배 한 후 담소를 나누고 있다.

● 전남도당 3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13억387만원

지출, 조직활동비 등 6천459만원

전남도당(위원장 황주홍)의 3월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2억2천557만5889원과 권리당원 당비 4천333만1024원, 중앙당의 보조금 외 지원금 3천496만8636원을 포함해 총 13억387만555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지출 예산으로 전남도당은 인건비 2천31만6750원과 사무소 설치 운영비 1천71만

2965원 등의 기본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 조직활동비 2천894만4760원과 정책개발비 460만7천원, 그 밖의 경비 등 총 6천459만503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말 현재 잔액은 12억3천928만0524원임을 보고드립니다.

3월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또는 의견이 있으신 당원들께서는 도당 사무처 장미랑 총무간사(T.061-287-12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욱 투명하고 알찬 도당 재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표

(수입·지출기간 : 2015.03.01 ~ 03.31)

구분	과목	계	보조금외		
수입	전 년 도 이 월	1,225,575,899	1,225,575,899		
	당 비	43,331,024	43,331,024		
	기탁금(중앙당예한함)	0	0		
	후 원 회 기 부 금	0	0		
	보조금(중앙당예한함)	0	0		
	차 입 금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하급당부	0	
			계	0	
		보조금외	상급당부	34,968,636	34,968,636
			하급당부	0	0
	계	34,968,636	34,968,636		
소 계	55,162,086	55,162,086			
그 밖 의 수 입	0	0			
합 계	1,303,875,559	1,303,875,559			
지출	선거비용	0	0		
	기본경비	인건비	20,316,750	20,316,750	
		사무소 설치 운영비	10,712,965	10,712,965	
		정 책 개 발 비	4,607,000	4,607,000	
		정 치 활 동 비	조 직 활 동 비	28,944,760	28,944,760
			여 성 정 치 발 전 비	0	0
	그 밖 의 경 비	13,560	13,560		
	지 원 금	보조금	상급당부	0	
			하급당부	0	
			계	0	
		보조금외	상급당부	0	
			하급당부	0	
	계	0			
소 계	0				
합계	64,595,035	64,595,035			
잔액	1,239,280,524	1,239,280,524			

● 당비 지출내역

과 목	연월일	내 역	성 명	직 업	금 액
그 밖의 경비	15.3.10	농협 UMS 수수료	농협 UMS요금	금융	1,000
그 밖의 경비	15.3.10	농협 UMS 수수료	농협 UMS요금	금융	12,56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2	실내용 현수막 제작(전라남도당의 새로운 마음가짐)	서광광고기획	제조	160,6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4	복사기,프린터 임대료(3월)	제이앤씨정보통신(복사기)	임대	22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12	사무실 자리배치로 인한 전화선 이동작업 및 설치비	국제정보통신(키폰)	키폰	82,5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12	사무실 사무물품구입비	오피스디포	문구	36,2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13	사무실 임대료(3월분)	주)현주건설	건설	2,75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19	전남도당 당직자(8명)명함제작비용	이지	제작	158,4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19	사무실 다과 구입비(2015.03.13미수금)	와이마트남악	도매	43,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19	사무실 다과 구입비	와이마트남악	도매	70,25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20	정수기 렌탈비용	웅진코웨이	대여	47,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24	사무실 관리비, 전기료(2월분)	남악도청프라자	부동산	1,163,745
사무소설치·운영비	15.3.25	신문구독료(3월분) 한겨레신문 외 6개	신문		91,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25	청소용역비청구(2015.02.20-03.20)(1개월분)	조00	용역	400,0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25	2월 전화요금 자동이체	(주)한국케이티	전화국	8,05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25	2월 전화요금 자동이체(문자요금포함)	(주)한국케이티	전화국	5,416,96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25	2월 전화요금 자동이체	(주)한국케이티	전화국	5,66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26	등기발송비(여수을 지역위 임명장 발송)	남악우체국	우편	8,5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26	등기발송관련 물품구입비(여수을 지역위 임명장 발송)	남악우체국	우편	1,600
사무소설치·운영비	15.3.26	사무실 CCTV이용료 자동이체	씨피에스	서비스	49,500
인건비	15.3.2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전략국장, 민원국장, 총무간사)	정진홍푸드 전남도청	음식	21,000
인건비	15.3.3	사무처 당직자 식대(대변인, 전략국장, 총무간사)	쌍구분식	음식	23,000
인건비	15.3.3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쌍구분식	음식	10,000
인건비	15.3.4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전략국장, 기획국장, 총무간사)	정진홍푸드 전남도청	음식	14,000
인건비	15.3.6	유급사무당직자 4대보험료 2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1,800,210
인건비	15.3.6	사무처 당직자 점심식대(대변인, 전략국장, 총무간사)	만채도바다장어	음식	30,000
인건비	15.3.6	사무처 당직자 점심, 저녁식대(3월5일자)(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전략국장, 민원국장, 총무간사)	쌍구분식	음식	61,000
인건비	15.3.11	사무처 당직자 점심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간사)	한사랑한우명가	음식	39,000
인건비	15.3.11	사무처 당직자 저녁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조직국장, 민원국장, 총무간사)	쌍구분식	음식	25,000
인건비	15.3.11	사무처 당직자 식대(대변인, 기획국장)	한사랑한우명가	음식	20,000
인건비	15.3.12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기획국장, 총무간사)	정진홍푸드 전남도청	음식	14,000
인건비	15.3.17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간사)	한사랑한우명가	음식	62,000
인건비	15.3.18	사무처 당직자 점심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간사)	사랑채한정식	음식	50,000
인건비	15.3.18	사무처 당직자 저녁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간사)	한사랑한우명가	음식	41,000
인건비	15.3.19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간사)	한사랑한우명가	음식	30,000
인건비	15.3.20	상근당직자 3월분 급여	김00	수석사무처장	2,609,980
인건비	15.3.20	상근당직자 3월분 급여	홍00	대변인	2,644,410
인건비	15.3.20	상근당직자 3월분 급여	이00	조직국장	2,639,980
인건비	15.3.20	상근당직자 3월분 급여	전00	전략국장	2,639,980
인건비	15.3.20	상근당직자 3월분 급여	박00	민원국장	2,639,980
인건비	15.3.20	상근당직자 3월분 급여	김00	기획국장	2,639,980
인건비	15.3.20	상근당직자 3월분 급여	장00	간사	1,901,330
인건비	15.3.20	사무처 당직자 저녁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여성국장, 총무간사)	쌍구분식	음식	74,000
인건비	15.3.23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간사)	정진홍푸드 전남도청	음식	24,500
인건비	15.3.24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민원국장, 총무간사)	쌍구분식	음식	31,000
인건비	15.3.25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간사)	사랑채한정식	음식	42,000
인건비	15.3.25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기획국장)	한사랑한우명가	음식	18,000
인건비	15.3.26	사무처 당직자 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간사)	쌍구분식	음식	50,000
인건비	15.3.27	사무처 당직자 점심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총무간사)	콩주발전주 콩나물국밥	음식	40,000
인건비	15.3.27	사무처 당직자 저녁식대(수석 사무처장, 대변인, 전략국장, 민원국장, 기획국장, 여성국장, 청년국장, 총무간사)	국수나무 전남도청남악점	음식	81,400
정책개발비	15.3.16	도당위원장 및 언론인 정책 간담회	송하	음식	105,000
정책개발비	15.3.16	도당위원장 및 언론인 정책 간담회(3월5일건)	스시교	음식	16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이00	목포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조00	여수갑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박00	여수을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한00	나주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하00	회순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우00	광양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최00	구례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송00	담양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홍00	영광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김00	장성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이00	고흥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 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임00	보성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신00	보성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황00	장흥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김00	강진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김00	영암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박00	영암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윤00	해남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연락소장 정책간담회 정책개발비	서00	진도	200,000
정책개발비	15.3.30	사무국장.연락소장 및 당직자 정책간담회 식대	운동장가든	음식	542,000
조직활동비	15.3.10	제2차 도당상무위원회 관련 다과 구입비용	와이마트남악	도매	108,600
조직활동비	15.3.12	제2차 전남도당 상무위원회의 현수막 제작비용	서광광고기획	제조	44,000
조직활동비	15.3.12	당보발송 각대봉투제작비용(2,000장)	삼보애드컴	제조	264,000
조직활동비	15.3.13	전남도당 당보제작비용(10,000부)	심미안기획	제작	4,150,000
조직활동비	15.3.13	당보발송관련 우편요금(4,248통)	남악우체국	우편	2,166,480
조직활동비	15.3.16	제1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고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16	제1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김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16	제1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김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16	제1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문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16	제1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김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16	제1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최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16	제1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조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16	제1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최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16	제1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백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16	제1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신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17	제1차 전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현수막 제작비용	이런세상	제조	66,000
조직활동비	15.3.17	제1차 전남도당 당직자 및 공천관리위원회의식대	해태식당	음식	300,000
조직활동비	15.3.18	전남도당 권리당원 정비사업 용역비 (2015.03.09-03.17)(3일간)	유00	일시사역	150,000
조직활동비	15.3.19	당보발송관련 추가우편요금(23통)	남악우체국	우편	11,730
조직활동비	15.3.23	제2차 전남도당 당직자 및 공천관리위원회의식대	큰손탕집	음식	300,000
조직활동비	15.3.23	제2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고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3	제2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김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3	제2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김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3	제2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김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3	제2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문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3	제2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신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3	제2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조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3	제2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최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3	제2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김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3	제2차 전남도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비	백00	공천관리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4	전남도당 권리당원 정비사업 용역비 (2015.03.20-03.23)(2일간)	유00	일시사역	100,000
조직활동비	15.3.24	제3차 운영위원회의 당직자 인선 심의비	김00	임시의장	100,000
조직활동비	15.3.24	제3차 운영위원회의 당직자 인선 심의비	유00	도당운영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4	제3차 운영위원회의 당직자 인선 심의비	윤00	도당운영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4	제3차 운영위원회의 당직자 인선 심의비	남00	도당운영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4	제3차 운영위원회의 당직자 인선 심의비	손00	도당운영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4	제3차 운영위원회의 당직자 인선 심의비	김00	도당운영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4	전남도당 당보제작 봉투 추가비용 및 용역비용	심미안기획	제작	1,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김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김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박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박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윤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이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정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조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조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최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하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하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25	제1차 전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심사비	김00	도당선거위원	100,000
조직활동비	15.3.30	4.29재보궐선거(국선거선거구) 경선여론조사 관련 출장비	전00	전략국장	197,900
조직활동비	15.3.31	전남도당 권리당원 정비사업 용역비	하00	일시사역	100,000
조직활동비	15.3.31	전남도당 권리당원 정비사업 용역비	하00	일시사역	150,000
조직활동비	15.3.31	전남도당 권리당원 정비사업 용역비	김00	일시사역	50,000
조직활동비	15.3.31	[목포]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애녹민음사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여수갑]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광고터운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여수을]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에이원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나주]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동신기획	제작	88,000
조직활동비	15.3.31	[화순]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대한디자인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광양]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소망광고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구례]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제일인쇄기획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담양]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현대광고기획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영광]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대신광고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장성]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상무광고기획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고흥]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하나광고기획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보성]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호행앤광고기획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장흥]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보거스광고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강진]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한솔광고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영암]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원출광고사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해남]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아우라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완도]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아이디어광고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진도]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아름기획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무안]천안함 추모 거리 현수막 제작비용	탐종합광고	제조	88,000
조직활동비	15.3.31	국회의원 지역활동 지원금(황주홍 외 9명)	국회의원		14,114,050



**KGU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대학원

## 한국의 셉록홈즈 프로파일러를 찾습니다!

국내 최초 민간조사전문가(사립탐정) 최고위과정 제1기 모집







### 모집안내

- ◇ 응시 자격 : 민간조사원(사립탐정)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대학(원)생 및 민간조사원 국가자격시험 준비생, 군·경찰·정보기관·공직·인론사·금융기관 퇴직자, 민간조사 창업희망자, 공공기관 및 기업체 감사·보안·경비·경호·생활안전 담당자
- ◇ 모집 인원 : 50명 (선착순 접수)
- ◇ 개강 일 :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7월 25일
- ◇ 교육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7시 (총 15주 과정)
- ◇ 등록금 : 220만원
- ◇ 교육 장소 : 경기대학교 서대문 캠퍼스 종합 세미나실

### 교수진

송하성 주임교수(경기대학교 교수·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관리관)  
 손상철 책임교수(국민대학교 교수·대한민간조사협회 수석부회장)  
 노인수 변호사(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김경진 변호사(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윤광재 교수(심미안기획 대표·수도군단 특공연대 본부중대장)  
 송승환 교수(전 파이낸셜뉴스 기자·국가기록원 기록조사위원)  
 강경량 교수(경찰공제회 이사장·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이갑진 교수(전 국군기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단장·예비역 대령)  
 정종원 교수(고려대학교 초빙교수·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김진희 교수(경기대학교 교수·전 미래에셋증권 상무)

### 특전

경기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민간조사전문가 인증패 수여,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진학시 기산점 부여

문의 : (02)363-5504 / [www.kgupi.kr](http://www.kgupi.kr)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2차선별  
시간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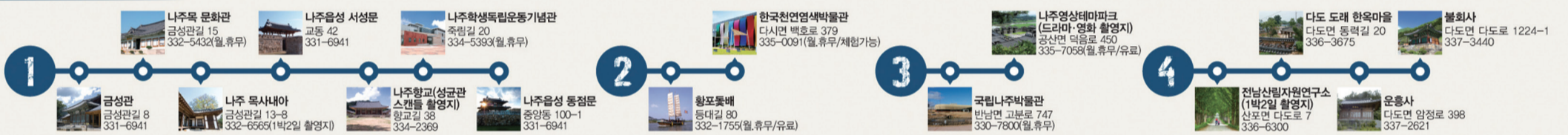
# 추천여행코스



## 1시간



## 2시간



## 반나절



## 1박 2일



**관광안내소**  
 읍 성 권 금성관길 15 (331-6941)  
 반 남 고 분 군 반남면 고분로 756 (336-1151)  
 영상테마파크 공산면 덕음로 450 (335-7941) (월,휴무)

